2019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확정

최다득표, SK 로맥…김현수 근소하게 꺾어

LG, 7명 배출 최다…생애 첫 올스타 무대 7명

2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드림 올스타(SK, 두산, 삼성, 롯데, KT)와 나눔 올스타(한화, 키움, KIA, LG, NC)의 '베스트 12' 선수가 확정됐다.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팬 투표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26일간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KBO STATS 앱, 신한SOL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감독, 코치,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수단 투표는 6월 18일 경기가 열린 5개 구장에서 이뤄졌다.

총 투표수는 팬 121만5445표, 선수단 343표가 기록됐으며, 팬 투표과 선수단 투표를 각각 70·30%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

최종 집계에서 드림 올스타 1루수 부문 SK 로맥이 총점 49.63점으로 2019 KBO 올스타전 최고의 별로 등극했다. 팬 투표 56만5614표(46.53%)와 선수단 투표 195표(56.9%)를 획득한 로맥은 팬 투표에서 57만4394표(47.26%)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선수단 투표에서 189표(55.10%)를 얻어 총점 49.61점을 얻은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 김현수를 0.02점의 근소한 점수 차로 꺾고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선수단 투표 합산으로 베스트 12 희비가 엇갈린 포지션도 있다. 드림 올스타 유격수 부문과 지명타자 부문 팬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두산 김재호(30.84점)와 페르난데스(35.57점)는 선수단의 지지에 힘입어 각각 삼성 이학주(30.67점)와 SK 정의윤(24.53점)을 제치고 최종 베스트 12로 선정됐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나눔 올스타 포수 부문 NC 양의지는 선수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점 48.55점으로 2016년 이후 4년 연속 베스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의지는 선수단 투표에서 343표 중 221표(64.43%)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수단이 뽑은 최고의 올스타로 선정됐다.

나눔 올스타 중간투수 부문 LG 정우영은 총점 48.09로 고졸 신인 최초로 투수 부문 '베스트 12'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대 고졸 신인 중 베스트로 선정됐던 선수는 2009년 KIA 안치홍, 2016년 넥센 이정후로 정우영은 투수 최초이자 통산 3번째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드림 올스타 포수 부문 삼성 강민호는 통산 9번째(2007~2013, 2015)로 베스트에 선정돼 이번 24명의 선수 중 최다 베스트 선수가 됐다.

이번에 선정된 총 24명의 선수 중 처음 베스트에 선정된 선수는 드림에서 SK 김태훈, 하재훈, 로맥, 고종욱, 두산 페르난데스, KT 강백호와 나눔의 LG 윌슨, 정우영, 고우석, 이천웅, NC 박민우까지 총 11명이다. 이 중 강백호와 박민우를 제외한 9명은 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를 베스트 선수로 서게 됐다.

이번 올스타전에는 역대 미스터 올스타(MVP)도 대거 선정됐다. 키움 박병호(2014)와 삼성 강민호(2015), SK 최정(2017), 키움 김하성(2018)이 별들의 잔치에서 최고의 활약으로 또 한 번 MVP를 거머쥘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단별로 살펴보면, 나눔 올스타에서는 LG가 7명으로 최다 선수를 배출했고 드림 올스타에서는 SK가 6명을 배출했다. 뒤이어 삼성과 키움이 각각 3명, NC와 두산이 2명, KT에서 1명이 선정됐다.

KBO는 올스타전 팬 투표에 참여한 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S10 5G 휴대폰(1명), LG 코드제로 청소기(1명), 미니 공기청정기(3명) 등 선물을 준다. 당첨자는 9일 KBO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KBO 인스타그램(@kbo.official)에서는 올스타전에 앞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스타전 베스트12에 선정된 24명 외에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 SK 염경엽, 나눔 올스타 한화 한용덕)이 추천하는 감독추천선수를 팀 별로 12명씩 총 24명을 추가 선정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펜싱 에이스 오상욱, 하계유니버시아드 2관왕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신성' 오상욱(성남시청)이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오상욱은 2관왕에 올랐다.

오상욱, 정재승(성남시청), 정한길(호원대), 최민서(한국체대)로 구성된 한국 사브르 대표팀은 7일(현지시간) 열린 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16강에서 아르헨티나를 45-22로 격파하고, 8강에서는 이탈리아를 45-34로 제압했다. 준결승전에서는 프랑스를 45-32로 대파했다. 대망의 결승전에서는 독일을 45-24로 무찔렀다.

오상욱은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남자 펜싱 사상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한국은 6일 열린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전수인(호남대)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펜싱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비롯해 남자 에페와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현재까지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전남드래곤즈 중원의 핵 '윤용호' 영입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청명)가 2019 시즌 후반기 전력 강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미드필더 윤용호를 임대 영입했다.

전남이 중원 강화를 위해 영입한 윤용호 선수(MF, 1996년생)는 메탄고, 한양대를 거쳐 2017년 수원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단하였으며, 2019년 대전으로 이적해 12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하며 맹활약중이다.

윤용호 선수는 볼 터치가 부드럽고 섬세하며 볼 소유력와 키핑력이 탁월하다.

또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박스안에서의 공간을 찾는 움직임과 과감한 중거리 슈팅력이 돋보이고, 상황판단을 통한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 주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전남은 즉시 전력감인 윤용호 선수의 합류로 중원 가용자원이 늘어나 팀 전체적으로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유니폼을 입은 윤용호 선수는 "전남은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팀이 나를 믿고 영입해준 만큼 그라운드에서 내 역할의 120%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류현진, 몸무게 나갔지만 마운드는 아름다운 몸 불필요"

LA타임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쓴다. 현지 매체도 류현진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류현진은 KBO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첫 번째 선수다. 10일 열리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로 올스타전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LA타임스는 8일(한국시간) '류현진은 어떻게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투수가 됐나'라는 기사에서 다저스의 류현진 영입과 올해 최고의 투수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 등을 전했다.

"2012년 9월, 다저스는 다른 메이저리그 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해 동안 류현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류현진은 그해 겨울 메이저리그 진출이 예상됐고, 다저스는 류현진이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했다"며 류현진에 대한 다저스의 관심을 언급했다.

류현진을 체크하기 위해 다저스는 로건 화이트 스카우트 팀장, 에이시 코로기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 한국인 스카우트 안병환씨 등 세 명의 구단 스카우트를 보냈다. 이들은 대전 한밭야구장(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류현진을 지켜봤다. 구단이 류현진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몸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앉지도 않는 등 최대한 비밀스럽게 움직였다.

LA타임스는 "류현진은 잘 던졌고, 다저스에서 파견된 이들은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며 "류현진이 포스트시즌 3선발로 나서는 것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류현진을 살핀 화이트 팀장은 "류현진은 위력적인 볼을 던진 건 아니지만, 자신의 볼을 뿌릴 수 있다"고 회상했다. 체형에 관해서도 떠올렸다. "그는 몸무게가 나갔지만, 마운드에서 아름다운 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증을 마친 다저스는 확실한 베팅을 했다. 2012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류현진에게 2573만7737달러33센트의 포스팅금액을 적어냈다. 매체는 "3과 7이 한국 문화에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저스와 류현진은 6년 3600만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지난 겨울에는 구단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 들여 1년 1790만 달러에 계약했다.

류현진의 KBO리그 시절도 살폈다. LA타임스는 "KBO리그 사상 최초로 신인왕과 정규리그 MVP를 거머쥐었다"고 소개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최다승(124승)을 보유한 박찬호와 2012년 한화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연도 류현진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봤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결심한 류현진에게 박찬호는 소중한 존재였다. 박찬호는 류현진에게 미국 문화나 메이저리그의 스케줄 등에 대해 조언했다"고 전했다.

다저스에 합류한 류현진은 "선발 등판일 사이에 불펜 투구를 하지 않았고, 이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저스 구단은 류현진의 루틴을 수용했다. 당시 다저스 단장 네드 콜레티는 "우리는 그의 방식을 받아들였다. 그의 가치와 경쟁력을 신뢰했다"며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적응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